

참선(參禪)이 명품, 쯔(Zen)은 짝퉁

프랑스서 한국불교 소개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불교에는 참선(參禪)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쯔(Zen)에 얽매인 것 보면 답답하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참선을 세계 브랜드화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방문단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9월 27일-10월 2일 프랑스를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일 방문단 숙소인 풀만 파리 몽파르나스(Pullman Paris Montparnasse)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불교 저평가 속상하다”
프랑스에 한국불교 적극 홍보
사찰음식 현지 반응은 ‘A’

자승 스님은 “해외에 나와 보면 한국불교의 저평가가 속상한 일인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선을 세계 브랜드화 하겠다는 스님의 의지는 9월 28일 기메박물관 방문 때 두드러지게 됐다.

기메박물관 관람 후 기념품 코너를 둘러보던 자승 스님에게 동행했던 헤민 스님이 “이것 좀 보시라”며 선 관련 책자를 보였던 것. 헤민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에게 “선 책자에 중국·일본 선이 전부인 양 기술돼 있고, 한국불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현장에서 “선에 대한 서구에서의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템플스테이 책자 등을 비롯한 한국불교 관련 서적을 프랑스어로 제작·배포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프랑스 방문은 조계종 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두 번째 행사였다. 조계종은 프랑스에서 >사찰음식 >간화선 >전통문화 >템플스테이에 중점을 두고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주프랑스대사관, 한국문화원, 때제공동체, 유네스코 본부, 파리7대학 등 방문단은 한국불교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해냈다.

이번 파리 방문은 뉴욕 방문시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총장을 만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 지원금 4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스님은 이번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조계종과 유네스코 간 공동사업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총무원장스님은 공식일정 중 파리7대학 행사를 가장 인상 깊었다고 꼽았다.

“파리7대학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환영해 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시다. 젊은이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에 가슴 벅찼습니다.”

자승 스님은 “많은 서구인들이 호기심으로 한국불교를 접하고, 사찰음식을 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음식의 스토리에 매료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음식에 대한 존귀함에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인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사찰음식이 전통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님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통에 얽매이기 보다는 서구인을 위한 음식의 스토리, 감동에 중점을 두고 맛 외에 채식요리라는 방편에 주목하겠다”는 설명이다.

배석한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소박·순수한 음식은 사찰전통음식으로, 사찰음식은 사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때제공동체 방문을 통해서 그곳의 장점을 분석해 템플스테이와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을 장기간 때제공동체에 파견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3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그동안 조계종은 공격적·적극적이지 못했다”면서 “인기에 연연하거나 자리 지키기, 종단 화합에 급급했던 과거 집행부와는 달리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0~20년이 걸리는 50년 이 걸리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립해 놓은 한국불교 로드맵대로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대정부관계에 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동안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매진하고
인재양성에도 총력 기울일 터
콜롬비아대 年 10만달러 지원

서는 조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세계인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며 “한국불교 세계화가 국익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 정부도 저절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교구를 설치하는 한편, 한국불교를 알릴 홍보대사 등을 위촉·파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미국 콜롬비아대에 매년 10만 달러를 지원해 한국(불교)학을 하는 학생을 육성키로 했다.

스님은 “과거 인연에 따라 학비를

조달하던 유학생을 이제는 종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면 종단에 쓰임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뉴욕 방문 때도 그랬고, 이번 파리 방문에서도 평가회의를 주재했지만 결과는 미숙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파리 방문은 노력 점수는 100점이냐 결과는 미지수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집행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에서 큰 것들을 배워 2012년 일정에서는 더 큰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스님은 인천 공항 출발시부터 다시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여정과 경비를 보고받고 일일이 체크할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종단 분담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값지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기 동안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조계종, 유네스코와 룸비니 간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력 다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프랑스 방문 4일째인 9월 30일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환담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는 다른 다양한 문화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다가 조계종과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상이 같기에 더욱 더 연대할 수 있다”며 총무원장스님 일행을 환영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간 평화에

도 관심이 높다. 유네스코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면 종단의 역량에 맞게 크던 작던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은 “연등축제 등 여러 유무형 전통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만큼 사무총장께서 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승 스님과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아이티 지원사업과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포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조계종과 유네스코는 만기문 UN사무총장이

제안한 룸비니복원사업을 위한 네 팔 방문에 함께하기로 했다. 11월 예정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방한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환담에는 기획실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통역 헤민 스님과 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배석했다. 유네스코에서는 호소야 사무총장 비서실장, 에릭폴터 대외협력 사무총장보, 에릭모 무라이 사무총장 비서실 아시아태평양 담당과장, 장기원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대사, 장재복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 공사가 참석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연등축제 세계유산 등재 돕겠다

사찰음식 극찬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한국불교가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연등축제 등 한국불교 문화재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9월 30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각국 대사를 대상으로 열린 만찬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양’ 전 이렇게 말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의 만찬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의 긴 문화역사를 잘 알고 있다. 조계종이 유네스코와 많은 일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불가리아 정치인으로 유럽통합 담당 장관 등을 거쳐 2009년 9월 유네스코 첫 여성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유네스코 60여 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불가리아의 NATO 및 EU 가입에 큰 공을 세운 외교관이던 그녀는 사무총장 선출 당시 이집트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화가였던 호스니 장관을 4표차로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젊은 시절 선(禪) 관련 서적의 번역을 시도했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깊다.

이날 만찬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선에 관한 책을 번역하다 공안을 옮기기가 어려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방한때 템플스테이를 통해 젊은 시절의 공금증을 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한국 불교계가 펼치는 음식 남김 없는 캠페인(빈그릇운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찰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이 아름답고 맛도 좋다”며 극찬했다.

한편, 만찬에는 조계종 대표단을 비롯해 보코바 사무총장 부부와 유네스코 주재 각국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왼쪽)과 만찬 전 환담을 나누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모습. 두 사람의 손에는 와인 대신 오미자차가 들려 있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1년 10월 20일까지

◆개강일시: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